



18일 타계한 학정 이돈홍 선생은 자기만의 서체를 확립하고, 후학 양성에 힘쓴 서예계의 큰 어른이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통 동국진체 기반 개성 담은 '학정체' 완성

(東國眞體)

18일 타계 서예가 이돈홍 삶과 작품 세계

18일 타계한 학정(鶴亭) 이돈홍(1947~2020) 선생은 한국 서예계의 큰 어른이었다. 전통 서예에 자신만의 색깔을 입힌 '학정체'를 통해 일가를 이룬 그는 특히 후학 양성에 힘을 쏟으며 대한민국 서예계를 풍성하게 했다.

담양군 대전면 대지리에서 태어난 학정이 처음 서예를 접한 건 광주중앙초등학교 시절 서예반에 들어가면서부터였다. 이후 전남대 섬유공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던 1966년 교장선생님이었던 부친의 권유로 송곡(松谷) 안규동 문하에 입문하며 본격적인 서도 수업을 받았다. 원고(圓高) 이광사가 완성한 서체로, 중국을 모방하지 않은 해학과 여유가 담긴 우리나라 전통 서법 '동국진체(東國眞體)'의 전통을 계승했던 스승 덕에 학정 역시 동국진체에 몰두했고 수십년간의 절치타마 끝에 자신만의 자유분방한 서체인 '학정체'를 완성했다.

중국 자금성 궁궐박물관에 작품이 영구 소장 되어있는 등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작품세계를 인정받은 학정은 중국 등 해외와의 서예 교류에도 열심이었다. 북경대학서예연구소 객좌교수, 중국산서대학교 초빙교수, 주한 중국대사관 중국문화원 고문, 중국광동성서법기협회 고문, (사)국제서예가협회회장 등을 맡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예결금란:한중대표서예전' 등을 열기도 했다.

학정서예원 통해 후학 1만2000명 배출

5·18국립묘지 '민주의 문' 등 작품 남겨

송곡 선생의 권유로 아산 조방원 선생에게 그림을 배우기도 한 그는 자유로운 필치로 아크릴 물감을 손에 묻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교회전 때 서양화로 그린 서예 회화인 '몽화(夢畫)'를 선보이기도 했다.

송곡 선생이 써 준 '일심(一心)' 글씨를 벽에 걸어두고 늘 마음에 새겼던 학정은 무엇보다 후학 양성에 큰 힘을 쏟았다. 학정서예연구원은 서예 교육의 '못자리'이자 서예인의 '응용문'이었다. 1975년 호남동 성당에 처음 문을 연 그의 서실은 전일빌딩 시절을 거쳐 현재의 자리로 옮기기까지 45년 넘는 세월동안 이어져오고 있다.

지금까지 거처한 문학생은 1만2000여명에 이르고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는 60여명, 광주시전과 전남도전을 비롯해 유수의 공모전 초대·추천 작가는 300여명에 달한다. 서예원 문학생들로 구성된 (사) '학정연구회'는 1977년 첫 전시를 연 이후 지난해까지 43회 전시회를 열어왔으며 여자 제자들로 구성된 지선묵연회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1980년부터 서예원으로는 드물게 회보를 발간해 오고 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지난해 38회 행사를 치른

'세계청소년서예대전'이다. 학정이 서예인구 저변확대와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를 위해 1982년 열기 시작한 '학정 서예작품 공모전'에서 발전한 행사로 일본 교포와 조선족까지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매일 새벽 3시30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던 학정은 오전 6시엔 서실에 도착해 일이 없으면 오후 6시까지 꼬박 글씨를 쓰고 지도를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병원에 입원했던 학정은 11월말까지도 병상에서 글씨를 쓸 정도로 붓을 놓지 않았다.

그의 작품은 5·18 국립묘지 '민주의 문'을 비롯해 광주 5·18 민주광장 민주의 종각, 백양사 일주문, 서용 큰스님 기적비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제자인 오명섭 선생은 "선생님에게 배운 것은 서예보다도 서예인으로 갖춰야 할 품성, 인성이었던 것 같다. 손끝의 재주보다도 심성을 기르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래라 저래라 말이 아닌, 직접 실천하시는 모습에서 제자들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누구를 만나든 따뜻하게 포용해주셨던 분"이라며 "선생님이 남긴 여운은 오래도록 영원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슬하에 2남을 두었다. 서울대 서양학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을 졸업한 아들 연식씨는 미술사가로 활동하며 '이연식의 서양미술사 산책' 등 다양한 책을 펴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생은 아름답다' 신선운 초대전, 2월 2일까지 전대병원 갤러리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이 서양화가 신선운 초대전을 오는 2월 2일까지 병원 1동 CNUH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인생은 아름답다(Life is Beautiful)'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선인장·동물 등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 2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신 작가는 파스텔톤과 화려한 색감의 선인장 숲과 집·

동물 등의 소재들이 어우러진 몽환적이고 동화적인 느낌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작 'Beautiful things'은 선인장 숲속을 달리는 기린과 자동차들이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 동물원과 같은 느낌을 전한다.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한 신 작가는 10여 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현재 광주미협·전통과 형상학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



'beautiful things'

국악으로 맞이하는 설

국악상설공연, 21일~25일 광주공연마루

올해 설 명절 연휴에는 가족들과 국악 공연을 즐기면 어떨까. 광주시가 광주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육성하고 있는 국악 상설공연인 설 명절 기간인 21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린다.

첫 무대는 21일 (사)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부가 '흥(興)'이라는 주제로 꾸민다. '출산조',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 국악가요 '약손, 열두 달이 다 좋아' '진도아리랑' 등을 들려준다.

22일에는 풍물세상 굿패마루가 공연한다. 전통시장의 활기찬 이미지를 사물연주로 풀어내는 '사물시장'부터 빛고을 오일장의 흥을 해학적으로 풀어낸 '전통연희시장', 풍물놀이 '판굿' 등을 준비했다. 전통문화연구회 열우는 23일 '인(人) 수(水)화(火)풍(風)'을 주제로 웅장한

모듬북과 대북, 태평소로 연주하는 '타고', 강렬한 북가락과 섬세한 손동작이 어우러진 춤사위 '진도북춤' 등을 무대에 올린다.

24일에는 (사)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가 피리명인 김광복의 '팔도민요연곡' 독주, 판소리 심청가 중 가장 백미로 손꼽히는 '심봉사 눈뜨는 대목', 전통무용 '소고춤', 전통국악양상 놀음판의 '적성가'와 '속대머리' 등을 잇따라 선보인다.

명절 당일인 25일에는 (사)창작국악단 도드리가 비보이 짝꿍크루와 박진감 넘치는 '옹헤야' 무대를 선보이며 광주의 역사와 현재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국악가요 '설레임, 아리랑 광주' 등이 울려진다.

한편, 국악상설공연은 매일(일, 월 휴관)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관람할 수 있다. 전석 무료 관람이며 지정좌석제 수(水)화(火)풍(風)을 주제로 웅장한 /전은재 기자 ej6621@



(사)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 공연 모습.

농칠 수 없는 '광주독립예술영화 포토존'

2월 29일까지 CGV 유·스퀘어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김지연)가 2월 29일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 CGV 유·스퀘어에서 '광주독립예술영화 포토존'을 운영한다.

'광주독립예술영화 포토존'에는 현존 최고(最古)단관극장으로 예술영화전용관인 광주극장, 한국독립영화관을 1년 내 내 상영하는 광주독립영화관, 2020년 11회를 준비하는 광주여성영화제와 9회째를 맞이하는 광주독립영화제, 2019년 창간된 광주 최초 영화비평지 씬1980 등이 소개돼 있다.

또올해 스무살이 되는 청년들의 자유로운 감수성과 비주류 독립예술영화들의 정서를 오래된 비디오테일의 복고적인 이미지와 '20세기·2020·이공이공'으로 표현했다.

김지연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이사장은 "이번 포토존 설치를 통해 광주시민들이 독립예술영화를 친근하게 접하고 영화관람문화의 하나로 인식해 문화다양성 향유권을 확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